

아이를 혼낼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

아이를 혼내고 나면 늘 마음속에 찌찌한 뭔가가 남는다. 혼을 내다 자꾸 '버럭' 하는 바람에 언짢아질 때도 많고, 또 어떨 땐 가벼운 벌을 주기도 하는데, 과연 이 방법이 옳은지 헷갈리기도 한다. 어떻게 혼내야 '제대로' 혼내는 걸까?

■ 버럭! 화난 감정: "엄마가 그러지 말랬지?"

야단칠 때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는 '감정'이다. 감정에 사로잡혀 아이를 혼내다 보면 안 그러겠다고 다짐을 해도 알게 모르게 화풀이를 하게 된다. 결국 화난 부모와 북받친 아이의 두 감정이 만나 감정에 불이 붙는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다.

물론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. 묵혀둔 감정은 스스로를 공격해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이다. 화난 감정은 그때그때 푸는 게 좋다. 다만 그 화풀이가 사랑하는 '내 아이'에게로 향해서는 안 된다. 잠깐만 감정을 환기해도 불같은 폭발력이 한결 줄어든다.

■ 폭언: "언어폭력도 폭력!"



혼낼 때 내뉘는 말에 담아서 득 될 게 하나도 없는 말이 있다. 그런데 순간의 감정에 휩싸인 나머지, 혹은 악의 없이 습관적으로 폭언을 내뱉는 경우가 있다. 부모는 무심코 하는 말일 수 있으나 아이

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적지 않다. 습관적으로 듣다 보면 분노가 쌓일 수 있고 '정말 난 이것밖에 안 되나?' 라는 생각에 빠져들기 때문이다.

"네가 하는 짓이 늘 그렇지 뭐", "제발 00 분 좀 받아라", "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니?", "진짜 말로는 안



되겠구나." 이런 말들을 직장 동료에게, 내 친구에게 할 수 있겠는가?

■ 비교와 과거 들추기: "정말 그것밖에 못하니?"

혼낼 때 부모들이 가장 흔하게 말하는 단골 멘트가 있다. "재는 안 그러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?" 식의 남과 비교하는 말인데 이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멘트다. 부모 편에는 경쟁 심리를 유도해 자극을 주려는 거겠지만 효과는커녕 반항하고 싶다는 부작용만 불러온다.

혼낼 때 주의할 또 한 가지는 과거를 들추지 않는 것. 아이는 지금 혼나고 있는 상황만으로도 힘들고 서럽다. 그런데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한 지난 과오까지 들춰내면 더 힘들고 억울해진다. 야단칠 '지금' 무얼 잘못했는지,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고민하자.

■ 체벌: "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!"

체벌은 부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체벌이 남기는 효과 역시 미미하다. 아이에게는 상처를 남길 수 있고, 부모에게는 '내가 왜 그랬을까? 왜 순간 욱했을까?' 하는 죄책감만 남을 뿐이니 사랑의 매라는 이름의 체벌은 더 이상 없게끔 하자.

사진=shutterstoc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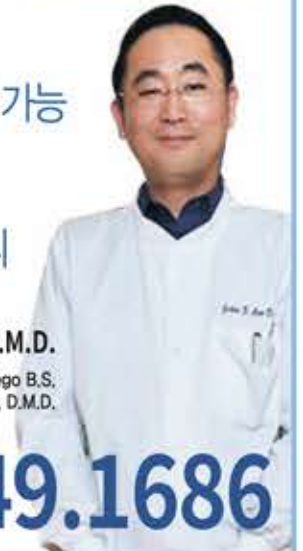
www.adentistryfullerton.com

A' DENTISTRY

나에게
꼭 맞는 틀니가
있는 곳!

PATIENTS' CHOICE AWARD

- 틀니전문
- 틀니수리 1-2시간안에 가능
- 자체 랩보유
- 임플란트 틀니



John S. Lee, D.M.D.
University of California, San Diego B.S.
Tuff Dental School, D.M.D.

714.449.1686

536 W Commonwealth Ave. #A
Fullerton, CA 92832



JJ 웨스턴 건설

WESTERN CONSTRUCTION, INC.
JJ WESTERN PAINT



리모델링 (하우스/커머셜)

키친/화장실

플러밍, 전기공사

타일/마루

페인팅 (하우스/커머셜)

캐비닛 Refinishing

욕조 재생, 창문

ADU 전문

지붕 공사/수리



JJ 웨스턴 건설

Tel. (714) 501-7726

Lic. #1068622
Bonded & Insured

7335 Orangethorpe Ave., Buena Park, CA 90621

jjwesternconstruction@gmail.com